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Ⅶ.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황속에서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1.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1) 마태복음 24 - 재난과 환난

[마태복음 24:8-9]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시대적 상황을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다. '재난과 환난'이다. 재난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혼돈이다(마 24:4-7). 많은 징조와 사인들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재난의 시작 뒤에 '환난'을 말씀하신다. '환난'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를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바로 환난의 때이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난과 같은 고난의 어려움이다. 고난과 고통은 실제로 어렵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과 환난 같은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태도가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가 된다.

(2) 고통의 때

[디모데후서 3:1, 12]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라 말한다. 왜 고통의 때인지 구체적으로 현상이 나온다(딤후3:1-12).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모두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한다. 바울이 말한 고통은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견뎠고, 주님께서 모든 박해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한다.

[디모데후서 3:11]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들이 재난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성도들은 재난과 함께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온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와같은 엄청난 저항 속에서 돌파된다. 이 모든 저항을 이길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2.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믿음

(1) 하나님의 신실하심 - 시편 136편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2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에 담아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는 것은 무엇인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

(2)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내 눈에 어렵게 보이고 내 믿음을 실족시킬 만한 엄청난 저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기억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환난의 어려움들을 해석해야 한다.

ㄱ)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사도행전 16:23-25]

- 23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 24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꼬를 단단히 채웠다.
- 25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한다.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들의 태도를 보라. 이들이 사람들과 싸웠는가? 나타나는 현상에 반응했는가?

그들은 기도하면서 찬양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긴 그들의 찬양은 무슨 찬양이었겠는가? 아마도 승리의 찬양이었을 것이다. 근거는 무엇인가? 시편136편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힘을 규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배했다. 고통은 실제로 두려움을 가져온다. 위축됨을 가져온다.

ㄴ) 옥을 바라보는 시각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냐고 질문할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 대항하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힐 수 있냐고 물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그들이 갇힌 상황과 옥에 고정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발에 채워진 사슬에 있었을 것이다.

ㄷ) 두려움, 위축됨 - 열 두 정탐꾼

[민수기 13:31-33]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32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33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민수기 14장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밤새 통곡했고,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한다.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

ㄹ)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8-10]

8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이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죽이려고 하였다. 그 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이 모든 상황을 달리 보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회막에 임한다.

3. 아버지의 마음 - 임재로부터 오는 안정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 마음의 표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로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결국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시편 131:2-3]

2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뎨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뎨 아이와 같습니다.

3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하라. 요동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헐박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닥칠 고난과 고통을 모를 분이 아니시다. 그 분은 반드시 이기시며, 성도들과 교회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